

2021년 5월 14일

친애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리더들께,

### 유행병 이후 교회에 대한 고찰

약 1년전, 세계는 한세기 이상 그 어떤 것과 다른 세계 대유행에 직면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많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과 불확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일하고, 행동하고, 모이는 방식을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단면역", "수퍼확산자", "격리소"와 같은 새로운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회생활에 격리, 마스크 쓰기, 표면 소독, 손소독, 줌으로 배우기와 같은 일들을 추가했습니다. 의료시스템이 긴장되고,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수백만개의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사회적 불안은 높아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강요되었고, 가족들은 고립되었고, 사랑하는 이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많은 이들처럼, 나사렛교회도 여러 중요한 것들에 코비드-19의 영향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마 16:18). 개신교 개혁가 테오도르 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때리는 것이 아닌 맞는 것에 속해 있지만, 교회는 때리는 망치들을 닦게 하는 모루<sup>1</sup>이다." 교회가 바이러스의 타격을 받았을 때 조차,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교회는 회복력이 있음을 상기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국제총회감독회는 팬데믹 이후의 교회특징들을 기도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분명히 바뀌었고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는 또한 처음에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사명을 세련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들과 열린 문들이 되었습니다. 진실일 수 있는 것들 중에, 올해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며 교회가 사람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교회는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대유행 이후의 세계에서 교회의 "재참여"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이 우리 모임을 제한했을 수 있지만 "교회를 폐쇄"하지는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재참여에 대한 모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든 폐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재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열방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를 만드는 우리의 사명을

<sup>1</sup> 모루는 대장장이들이 그 위에 쇠들을 올려놓고 두들겨 모양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말뚝입니다.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적응해 왔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목회자들, 감독들, 선교 지도자들, 평신도를 혁신과 적응으로 인도하여 많은 나사렛 회중이 물리적 건물에 묶여있는 “전통적인” 사역을 넘어서 그들의 핵심 가치와 사역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혼란으로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 하나님 백성들의 다시 모임

COVID-19 제한들이 여러 곳들에서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참여 문제는 주로 개인 대면 예배, 제자훈련, 교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대면 활동을 언제 다시 할 것인지의 지표는 지역 교회의 상황, 각 보건부 지침들, 지역 적법성 지침의 균형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대면 예배, 제자훈련, 교제에서 어떻게 다시 모이는가를 평가할 때, 다음의 고려사항들이 유용한 지침들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증인됨을 고려하십시오. 시기가 빠르거나 늦어진 재참여는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증인됨을 방해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회중들과 지역사회에서 병균에 취약한 이들을 고려하십시오. 정부당국은 물리적 거리두기에 관한 제한들을 완화할 수 있지만, 지역교회들은 그들이 사역하는 이들의 모임이 병균에 취약한 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공공장소들을 적절하게 소독하는 것,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다른 안전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 우리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십시오. 우리는 목회자들과 제직회가 다시 모이는 시기와 최선의 지침들에 관하여 함께 일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총회감독들 또한 그 총회의 맥락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안내를 제공해 주십시오.
- 다시 모이는 계획 세우기를 고려해 주십시오. 지역교회 지도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순서들을 고려하시고, 그 계획을 회중과 명확하게 목회적으로 소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전염병 이후의 시기로 이동함에 따라,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모인 회중 만을 강조하면서 전염병 때의 모습들로 돌아가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러한 강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양 떼를 다시 모으고 양 떼를 치료하고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한 이들을 섬기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나사렛 교회의 선교적 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세속주의와 성서적 문맹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에 직면 해 있습니다. 전염병은 희망 없이 해답을 찾고 있는 많은 이들을 사회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가 일어나면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채워진 세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에 의해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명한 기독교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은 고통받는 사회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 **우리는 거룩한 이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거룩한 삶을 정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유행병 이후의 세상에서 교회가 다시 모이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는 제자훈련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전염병은 교회생활 안에서의 몇가지 취약한 점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전인적인 제자훈련 (가르침, 교제, 봉사)에 해를 끼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결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온 마음과 영혼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동행에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위기임과 동시에 과정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여정 동안 큰 책임과 함께 제자훈련을 위한 기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사회의 양극화는 교회의 삶과 증언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회가 종종 만들어내는 나누어짐을 의도적으로 하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결한 사람들은 그 나누어진 틈새에서서, 서로 서로에게 손을 뻗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짐을 연합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들이 대유행 기간 내내 그들의 지역사회들에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왔음을 기뻐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하시기를 권합니다. 배고픈 이들을 먹이든, 아픈 이들에게 의료를 제공하든, 어린이들을 가르치든, 대유행 이후의 교회는 반드시 지역 사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모이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여러 연구들이 나타낸 바와 같이, 대유행 기간 동안 참여가 부족했던 우리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 **우리는 선교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넘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생명을 알고 경험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선교적 표현들은 본질적으로 물리적이고 디지털적 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번성하는 교회는 힘있는 대면적 표현과 의미 있고 강한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혼합 모델은 선교와 제자 훈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교회의 범위는 이제 교회 건물, 지역 사회 또는 심지어 그들이 위치한 도시의 경계를 넘어 뻗을 수 있습니다. 한 도시에 있는 교회는 자신들이 수천 마일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의 글로벌 선교 사역들을 통해 자문화를 넘어서 다문화적으로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문화 환경에서 선교사로 섬기라는 부름에 응답 할 기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기술은 우리 세계의 광범위한 구축

다양한 형태의 선교 참여를 안내하기 위해 국제총회감독회는 “교회의 정의”<sup>2</sup>를 재확인합니다. 영적 양육, 예배 또는 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고, 확인된 지도자와 나사렛 교회의 메시지 및 사명에 부합하는 그룹은 교회로 인정되며 지역 및 세계 교회 통계 속에 보고 될 수 있습니다.

### 상호연결의 가치

전염병은 상호 연결된 글로벌 가족의 가치를 밝게 드러냈습니다. 나사렛 교회의 전 세계 네트워크는 우리를 지원과 보살핌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지방에서 총회로, 총회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지구로, 우리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였던 우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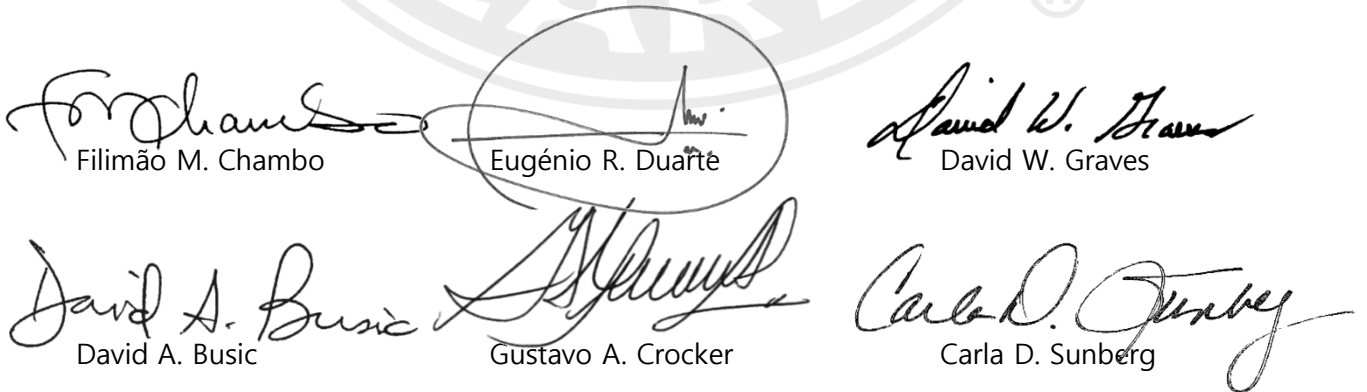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을 가진 교회가 위기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세대가 현대기술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에 압도되었을 때, 교회의 젊은이들은 한걸음 가까이 나아가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연세드신 세대와 함께 연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적 연결을 통해 달성 할 수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으며 그 결과 우리는 더 나아졌습니다.

### 전망하기

전염병의 폭풍이 가라 앉고 있음을 나타내는 희망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의 절대적인 확신은 우리의 변함없는 전능하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박해, 재난, 가난, 전염병 속에서 그의 신부를 인도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과거와 다를 수 있지만 “길, 진리, 생명”이신 한분은 똑같이 남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국제총회감독회



Filimão M. Chambo      Eugénio R. Duarte      David W. Graves  
David A. Busic      Gustavo A. Crocker      Carla D. Sunberg

<sup>2</sup> 12 월8 일 2015 년 나사렛교회차리규약들